

북한 디자인의 특성과 남북간 디자인 교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features of North Korea and design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박암종
동서울대학

Park, Arm Jong
Dong Seoul College

Key Words : North Korea, North Korea Design

제1장 서론:연구의 당위성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문화의 세기에 중요한 분야로 대두된 것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design)'이다. 이미 자국의 '문화(文化)'가 중요한 산업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토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매개체(媒介體)의 역할을 바로 디자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디자인은 문화를 동반한 교류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남북간 교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디자인 교류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분야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 통일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2장 북한의 미술 및 디자인 개념

1) 미술(美術)

미술은 “그 사회적 기능과 목적에 따라 기념비미술, 일반미술, 실용 및 장식미술(산업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선전화(宣傳畵)

그림과 글이 결합되어 있으며 정치성이 여리하고 표현형식이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고 대중성과 신속성을 띠는 직관?선전?선동을 위한 미술 선동화라고도 하고 포스터와도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포스터의 경우는 정치선전선동화, 경제선동선전화, 문화교양선전화, 광고선전화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정치 선전화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다.

3) 직관물(直觀物)

직관을 통하여 확고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에 쓰이는 그림, 도표, 모형 같은 것을 말한다. 또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선전문물로서 벽보, 속보, 구호, 그림, 사진, 도표, 네온사인, 플러카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북한식 표현이다. 한편 직관예술(直觀藝術)은 영화, 연극, 미술 등과 같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있는 예술을 말한다.

4) 출판화(出版畵)

출판화란 북한미술의 독특한 장르로 기동성 있고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판화, 포스터, 도안, 만화, 표지화, 삽화를 일컫는다.

5) 산업미술(産業美術)

산업미술은 제품의 형태와 색깔, 또는 생활환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있게 만들거나 꾸리는 등 산업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을 말하고 있다. 형태미술, 장식미술, 산업출판미술 등이 있다.

6) 도안(圖案)

북한에서는 시각적인 요소를 창작하는 디자인이라는 말 대신에 도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의복이나 의상디자인인 경우에 '옷도안' 이리든지, 우표디자인을 '우표도안', 라벨 디자인을 '상표도안'이리든지, 또는 타이페이스 디자인을 '글자도안'이리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제3장 북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1) 색채(色彩)

북한의 색채 사용기법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색채 조작법에 능하다는 것이다. 보이는 그대로 색을 쓰는 경우는 드물고 과장되거나 별다른 느낌이 드는 색채의 사용이 흔하다. 선전화나 산업미술에서도 다양한 색의 사용보다는 강렬한 몇 가지의 색으로 집약되고 함축되어 있다. 이같이 색채는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전체가 조화되도록 톤을 맞추어야 한다는 독특한 색채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색채법(制色法)'이라 부르고 있다.

2) 선묘(線描)

선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구사하고 있는 기법은 '집약'과 '함축'의 기법이다. 화면에 있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모든 것이 집약되고 함축된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종자론(宗子論)'이라 하는데, 쉽게 말하여 작품의 기본핵을 말한다. 예술작품에서 어떤 종자(등장인물 중 주인공이나 주제, 의미 또는 컨셉)를 제대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 상태를 좌우한다는 김정일의 예술이론이다.

3) 묘사(描寫)

북한의 작품을 보게되면 묘사시 가장 두드러진 기법은 사실주의적인 기법이다. 여러가지의 시각묘법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주의적이고 단일한 원근법의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실주의적인 것과 자연주의적인 것을 엄격히 구별한다. 자연주의적인 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반면에 사실주의적인 것이란 인민의 생각과 의도를 반영하여 그들의 정치 사상적인 의도에 맞게 그리는 것이다.

4) 필치

북한 미술에서 필치는 작품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기준이며 형상의 생동감을 보장해주는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크게 강조된다. 필치는 단순한 붓놀림이나 화면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물 성격을 개성적으로 보이게 하고 심리상태를 깊이 파고들어 인물을 "피가 뛰고 살아 움직이는 산 동적으로 보여주고 실경을 감상하는 듯한 감정"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제4장 남북한 디자인 교류 예상분야

1) 포스터(선전화)의 공동 제작

정치성이 배제된 한국의 미나 아름다움에 관한 포스터, 전국의 유명한 관광명소 포스터, 환경보존에 관한 포스터, 각종 공연이나 문화적인 행사 포스터 더 나아가 남북간에 관계되는 국가적인 대규모의 행사에 남북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잘 알려지고 교류가 가능한 태권도나 탁구, 축구, 사격, 유도대회 등을 공동 테마로 하여 그와 관련된 시각물들을 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사실 북한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거의가 사실주의적인 작품으로서 회화성이 짙은 것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형태에 있어 기초가 충실하고 대규모의 제작집단이 형성되어 있어 일러스트레이션 방면에 남북한의 교류가 촉진되면 서로 많은 자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만화영화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단순 교류차원이 아니라 협업의 수준으로 삼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많다.

3) 지역 문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

남쪽 대부분의 지방은 나름대로 지방화 정책에 의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심볼과 로고 및 문화상품들이 이미 상당수 디자인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개발된 낙후돼 있다. 이에 북한지역의 주요 문화자원이라 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나 술, 과일 등 특산물 등은 교류를 넘어서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심볼과 로고 및 캐릭터, 미스코트 등이 개발된다면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도 성공가능이 매우 높다. 개발의 여지가 많은 문화 콘텐츠가 많음으로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에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디자인계와 교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보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4) 서체 개발, 활용

북한의 서체를 살펴보면 현 우리체제에 잘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미려한 서체도 눈에 띈다. 또 어떤 것은 약간 수정 보완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있다. 특히 북한은 시각적으로 강한 효과를 주는 손글씨체가 여러가지 개발되어 있어 인식의 전환 및 활용도에 따라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현 국내 디자인계의 본문 서체의 부족현상을 상당히 메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내 서체의 보유수는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 질 것이다.

5) 컴퓨터 편집체계의 공동 연구

북한은 컬러 전자출판시스템으로 <통일신문>을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이 컬러 전자출판시스템은 중국 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자출판에서는 첨단 방식의 윤곽선 글꼴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준이라면 체제가 같은 컴퓨터 조판 분야에 관한 연구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호환성 있는 편집프로그램의 활용으로 남북한의 편집 및 출판계의 교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전통문양의 활로 개척

북한에는 많은 미술품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소중한 문양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성과가 기대된다. 최근 고구려의 벽화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좋은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디자인 측면에서 시각요소로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통문양에 관한 남북한의 연구, 교류 및 활용도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져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앞서 밝힌 남북한의 디자인 교류에 관한 내용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꾸준한 교류를 제안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중요할 사항이다. 실사 북한이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남한의 디자인계가 적극 나서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관련된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연다든지 하여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제5장 결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술적인 기질과 소질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남북한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며, 예술의 표현양식이나 방법, 표현매체, 예술적 정서와 민족감정 같은 것들은 공통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습성이나 의식주, 관혼상제, 그리고 건축양식과 주거문화 등에서도 표면적인 변질은 있을 수 있어도 본질에서는 전통적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거의 반세기여 가까운 분단과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민족으로서 정체의식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분단으로 인하여 끈끈한 민족감정은 더욱 고취되어 있다. 때문에 서로 만나 가슴을 연다면 동일 문화민족의 동질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합작기업이 진출해 북한의 디자인 수준을 높인 평화지동차의 '휘파람'의 북한 내 광고는 디자인 교류의 희망을 싹 틔웠으며 최근 이노디자인이 디자인한 신덕산생물의 국내 판매용 패키지 디자인은 디자인 교류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아무리 남북한이 장단점이 있고 공통성이 많다 해도 이러한 활발하고 실리적인 문화 교류가 전제되지 않고는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어 갑작스레 통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50년간의 단절된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문화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디자인 분야도 보다 포괄적이고 정책적으로 하루빨리 동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디자인에 관해 다각도로 연구 분석한 결과 1인 독체체제의 유지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건강한 면모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디자인을 비롯한 북한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만 남북한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건강한 면모를 부각시키고 부족한 것들은 서로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평화와 공존,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 시대 우리의 최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너 또한 남북한 간의 관계가 1+1=2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학예술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 출판미술자료(선진화), 평양공업출판사, 1979
- 백귀전서,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북한의 이동영화 연구, 서울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북한의 영호산업 현황과 영호진흥정책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 조한범 NCO를 통한 남북사회문화 교류, 협동진방안 연구, 민통연, 1993
- 이유영 김장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8
- 宮塚利雄, 朝陽雜誌, 東京JICC, 1992
- 山本展南, 肉眼で見た 北朝鮮, 東京毎日新聞社, 1992
- 한국관광공사, 북한지역 관광상품 개발방안, 1997
- 世界思潮, 東京世界思潮社, 1990
- 朝陽雜誌, 東京朝陽雜誌社, 1994